

## 社會變動과 專門大學院의 발전

李 圭 煥

(梨花女大 教育學科)

### 1. 産業化에 의한 社會變動

사회 변동을 촉진하는 근본적 요인은 産業化의 진전이다. 산업화란 前近代的 社會, 이를테면 前産業社會로부터 근대 사회로 볼 수 있는 産業社會로 이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산업화의 진전은 필연적으로 사회 구조의 변동을 초래하고, 생활 양식을 변모시킬 뿐만 아니라 敎育과 文化의 형태 및 성격까지도 변화시킨다. 제1차 산업으로서의 農業中心 사회로부터 제2차 산업으로서의 工業中心 사회로 변화한다는 것은 산업 구조의 변모뿐만 아니라 社會構造의 변모도 수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발전 단계는 산업화 진전의 정도에 따라 ① 前産業社會, ② 産業社會, ③ 脫工業社會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전산업 사회란 産業革命 전의 전근대적 사회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 산업 사회는 공업 발달에 기인한 産業文明의 출현으로 성숙해진 사회에서의 변동을 의미한다. 성숙된 사회에서는 생산 기술의 발달이 현저해지고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 많은 산업 선진국이 경제적 성숙을 성취하게 된 것은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였는데, 미국·프랑스·독일의 경우는 20세기 초였고, 일본의 경우는 제2차 세계 대전 開時를 전후한 때였다.

경제적 성숙은 고도의 대중 소비 시대의 막을 열게 하였다. 대중 소비는 大量生産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공업 발전에 의해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가 가능한 사회를 高度産業社會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1970 년대에 경제적 성숙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하여 大量生産體制의 기반이 확립되었지만, 그것이 대량 소비를 가능하게 한 것은 1980 년대에 들어서였다고 볼 수 있다. 고도 산업 사회에서는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重化學工業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철강·석유 화학·기계·전기와 같은 제2차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여 생산력이 증대되고, 기능적으로 분화된 많은 조직과 管理體系가 확립되며, 결과적으로 대량 생산에 따른 대량 소비에 의해서 제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특징을 고도 산업 사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는 職業階層의 構造에 있어서의 변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직업 계층의 개방성이 증대되고 社會移動의 폭이 넓어진다. 이를테면 낮은 계층 출신자도 질 좋은 고등교육을 받고 업적을 쌓으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權力構造에 있어서의 변동이다. 産業的 權力이 거대화되고 경영 엘리트층이 형성되

는 반면, 이에 대한 對抗權力이 거대화되고 勞動組合 세력이 증대된다. 뿐만 아니라 산업적 권력의 거대화는 경영 조직의 官僚制化를 촉진함으로써 능률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체 종업원들을 다그친다. 경영 엘리트의 등장은 전문적 분화에 따른 分權化를 촉진하게 되고, 산업 민주주의 사상의 보급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에 있어서의 권력 민주화를 촉진하게 된다. 특히 노동조합 권력의 거대화가 勞使紛糾를 격화시키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그것을 예방 또는 조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법률 또는 규정의 제정 등)를 취하게 된다.

셋째는 人間的 疎外現象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고도 산업 사회는 주로 자동화된 기계 또는 장치에 의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대량의 노동자가 필요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失職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기계의 자동화는 실직자를 배출하는 하나의 요인인 동시에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소외시킨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근래에는 공업용 로봇이 개발·이용되어 인간적 소외감이 수반되는 무미건조한 단순 노동을 한층 더 촉진시키고 있다. 컴퓨터의 등장도 인간적 소외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컴퓨터는 단순한 수치 계산만이 아니라 기억과 판단의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두뇌를 대신할 수 있고, 경영인의 의사 결정까지 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생각하는 갈대로서의 人間的 精神까지 컴퓨터에 팔아 넘기고, 그것이 인간을 지휘·명령하게 되어 인간 자신이 소외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컴퓨터를 조정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고성능의 컴퓨터라도 인간의 복지와 발달을 위해서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고도 산업 사회는 필연적으로 脫工業社會로 변모하게 된다. 이를테면 산업 사회로부터 탈산업 사회로 변동하는 것이다. 탈공업 사회는 情報化社會, 知識產業社會, 超產業社會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선진국에 있어 21 세기의 사회는 탈공업 사회로 변모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탈공업 사회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財貨의 생산 중심 경제로부터 서비스 중심

경제로 변모한다. 제1차 및 제2차 산업보다 제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로 한다.

② 기술적 계층이 직업 구조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탈공업 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과학자와 기술자이다.

③ 산업 사회에서는 재화 생산을 위해서 기계와 인간이 공동 작업을 하지만, 탈공업 사회에서는 과학자와 기술자가 지식을 매개로 하여 조직되는데, 이 조직은 사회적 관리 및 技術革新 지향적 변화를 목표로 하게 된다. 이론적 지식은 정치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변화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④ 이론적 지식은 경제 정책의 방향 설정과 연구 개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시된다. 이론적 지식은 사회의 戰略資源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 관계의 확립을 위한 원리가 될 수 있다.

⑤ 새로운 知的 技術이 개발된다. 지적 기술이란 조직 및 체계의 운영에 관한 지적 기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물품 구입의 방법, 출산할 자녀 수의 결정, 선거시 투표의 방향(인물 선정), 직업 선택 등에 관계한다.

⑥ 탈공업 사회에서 대학과 연구소는 이론적 지식의 창조 및 보급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사회에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산업 발전을 지향한 의사 결정은 정부의 기술 관료에 의해서 행해지며, 그들은 사회 변동의 예측·방향 설정·통제와 같은 일들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2. 社會變動과 大學의 專門職業人 養成機能

산업화에 의한 사회 변동은 필연적으로 대학이 수행해야 할 기능에 변화를 야기시킨다. 공업 중심 산업이 발달하기 전의 시대, 이를테면 前産業社會에서의 대학의 기능은 순수한 學問 研究와 敎授였다. 봉건 귀족 계급이 지배하였던 전산업 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은 封建君主의 비호 하에 연구와 교수의 자유를 누리면서 심오한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고 고매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산업 사회의 대학은 외부 사회와 유리되어 고독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주적으로 학문을 할 수 있는 최고 지성의 殿堂이었다. 뉴먼(Cardinal Newman)은 학문 연구의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대학은 모든 지식, 과학, 객관적 사실과 원칙 탐구·발전·이론 등을 보호하는 권력을 갖는다. 대학은 또한 知識의 영토를 地團化한다. 대학은 모든 일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받아서는 안 된다.”<sup>1)</sup>

前産業社會에서는 고답한 학문적 교양을 지닌 사람이 사회를 지도하는 중요한 위치에 들어설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의 분업은 거의 볼 수 없었고, 대학 졸업자의 진출은 행정 관리, 교원, 법관, 목사 등과 같은 인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직업에 국한되었다. 또한 오늘날의 대학과 같이 직업과 학문을 연관시켜 교육할 필요가 없었고, 학자적 교양과 성격은 직업 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학자라는 신분은 封建的 君主國家가 필요로 하는 직업의 높은 지위에 들어서기 위한 前提였다.<sup>2)</sup>

18세기초에 프로이센(독일) 정부의 최고 교육 행정 책임자인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가 주도한 대학 개혁은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는 시대에 있어 학문과 직업을 연결시키려는 경향에 대한 일대 각성 또는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中世式 大學의 장점을 살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치하에서와 같이 고등 교육이 전문적인 직업에 직접 관계하는 것을 배격하였다. 그 당시 유명한 詩人 쉐러(Schiller)는 순수한 학문이 아닌 ‘빵을 위한 학문(Brotwissenschaft)’을 하는 대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훔볼트식 대학 개혁의 방향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훔볼트는 대학을 원칙적으로 교수와 학생이 서로를 동등한 입장에서 대하는 學問的 交渉의 장소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교섭은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자주적으로 고독하고 자유로운 교수와 학습의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고독과 자유는 개인적 수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의 共同社會라는 집단적 수준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는 교수되는 지식의 量보다는 학문적 연구의 태도, 이를테면 지식, 인식,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려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을 근본적인 문제로 삼았다. 또한 教授의 自由와 學習의 自由를 중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생각하였다. 중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학습자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대학에서는 교수하는 자와 학습하는 자가 평등한 권리를 갖고 순수 학문을 대해야 한다. 양자는 모두 학문적인 인간으로서 自己統制의 自由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sup> 훔볼트에 있어 대학의 제1목적은 哲學 또는 人文學에 기초한 學者的 教養人의 형성이요, 목사·의사·법관·교사와 같은 전통적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제1의 전제는 그러한 학자적 교양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발달하고 기술 혁신에 의한 산업화가 촉진됨에 따라 前産業社會는 본격적인 産業社會로 변화해 갔다. 산업사회는 귀족 계급을 대신해서 자본가 계급이 세력을 차지하게 되는 사회로서 필연적으로 대학의 교육 목표와 관리 운영 및 방법에도 자본가 계급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처음부터 귀족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건국 초기에 자본주의 사회로 출발한 美合衆國의 대학은 귀족 계급이 온존하고 있는 西歐 사회(프랑스는 제외)의 대학에 비해 한층 더 기업가들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西歐 대학은 美國의 대학보다 학문적 분위기가

1) C. Kerr, *The Uses of the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p.3에서 재인용.

2) H. Schelsky, *Einsamkeit und Freiheit-Idee und Gestalt der deutschen Universität und Ihrer Reformen*,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1, s.155.

3) 이규환, 「先進國의 大學制度」(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0), p.6.

심오하고 후자의 대학교육은 지나치게 경험주의적·실용주의적·직업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대학이 기업 경제와 보다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산업 사회는 전형적인 利益社會(Gesellschaft)이다. 이익 사회의 출현 및 발전은 필연적으로 대학의 기능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 경제는 대학에 우수한 과학 기술자를 많이 양성·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국가는 정치·행정·경영 관리, 교원, 문화 요원 등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을 최우선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할제이(A.H. Halsey)는 산업 사회의 출현에 따라 대학의 기능이 경제 중심으로 되어 가고 있음을 암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오늘날 대학과 경제와의 관계는 명백하다. 일반적으로 Max Weber와 T. Weblen은 大學을 産業社會에 적응하는 過程에 있는 조직체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40년 후인 오늘날 W.H. Whyte는 그의 저서에서 대학을 技術社會라는 조직에 통합된 一部分으로 기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의 기원은 發明의 時代라고 불리우는 19세기에 있어서 科學의 生産過程에의 응용과 이에 따른 농업·화학·야금·기계공학·전기공학 등의 분야에서의 技術的 專門職業의 발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조직과 고등교육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의 經濟恐慌을 벗어나 제2차 대전 후까지 이르는 동안 생산성의 고도화가 요구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大學教育制度는 연구 기관으로서도, 職業人 養成 施設로서도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를 통해서 경제 속으로 자꾸만 밀려 들어 갔다.”<sup>4)</sup>

특히 高度産業社會에서 연구는 한층 더 기술화되고 대학은 경영화되고 있으며 대학교육은 직업적으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경제 또는 정치에 있어서 특정 利益團體가 학문 연구 등 대학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차지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 이를테면 국가와 경제는 대학에 대해서 大量 購買者로 나타나게 된다. 대학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資格證과 자유직을 위해 부여하는 卒業證書 또는 學位로써 이에 부응한다. 학생은 장차 그가 택할 직업인을 탐아가기 때문에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도 변화한다. 따라서 지난 날의 순수한 학문 연구적 대학은 직업 기술 교육의 頂上에 있는 교육 시설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다.

### 3. 高度産業社會와 專門大學院의 擴大·發展

고도 산업 사회에서는 고도의 전문 직업 기술 교육과 전문 지식 및 기술 개발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국가와 기업은 碩士와 博士水準의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人力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産業社會의 초기 및 중기에 있어서는 學士學位 수준의 전문 직업 기술 인력만으로도 사회경제적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도 산업 사회, 더 나아가 제3차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脫工業社會에 있어서는 학부 수준에서 양성된 직업 기술 인력만으로는 사회 경제의 선진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한국 사회도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산업 사회로 변모하였고 '80년대부터는 고도 산업 사회에 돌입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대학원, 특히 專門大學院을 확충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70년 4월에 국무총리의 자문 기관으로 발족된 '장기교육계획심의회'에서는 고등교육 개혁의 기본 방침의 하나로 '大學院 教育의 강화'를 제시하였는데<sup>5)</sup> 이는 고도 산업 사회의 건설에 대비한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專門大學院의 발전·확대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 변동과 관련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 정책에 의해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4) A.H. Halsey, "The Changing Functions of Universities," *Education, Economy, and Society*, The Free Press, 1964, p.459.

5) 이규환, "박정희의 고등교육정책", 「歷史는 어떻게 볼 것인가?」, 동아일보사 조사부, 1990, p.458.

〈표 1〉 전문대학원의 실태

종	류	학교 수	학생 수	종	류	학교 수	학생 수
총	계	183	34,477	경	영	정	보
교	육	40	11,575	신	학	대	학
경	영	27	6,195	농	축	개	발
행	경	26	4,135	정	보	산	업
산	업	17	2,854	산	업	정	보
무	역	5	970	연	합	신	학
환	경	5	615	국	제	학	대
보	건	6	650	정	책	과	학
산	업	2	570	산	업	과	학
사	회	2	435	사	회	교	육
경	영	3	360	공	공	정	책
도	시	1	160	유	학	대	학
국	제	2	330	경	보	과	학
환	경	1	190	산	업	기	술
식	량	1	200	산	업	경	영
지	역	4	380	해	사	산	업
신	문	2	260	정	책	개	발
통	역	1	173	지	역	사	회
평	화	1	100	노	사	관	계
중	소	3	285	금	운	대	학
건	설	1	155				

\* 자료 : 「문교통계연보」, 서울 : 문교부, 1989.

추진된 1960 년대에 전문대학원은 그다지 발전되고 있지 않았다. 문교 통계에 따르면, 1966 년에 專門大學院은 10 개교에 불과하였다.<sup>6)</sup> 그러나 1970 년대에 들어서 전문대학원이 속속 설치되어 '73 년에는 그 수가 37 개교에 달하였다.<sup>7)</sup> 그리고 1980 년대에는 전문대학원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89 년에는 총 183 개교로서 '73 년보다 4 배나 증가하고, 학생 수도 7 배나 증가하였다.<sup>8)</sup>

전문대학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약 40 종에 이르고 있다. 특히 産業情報大學院, 情報科學大學院, 勞使關係大學院과 같은 것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은 전문대학원이 고도 산업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으로의 脫工業社會에 대비하는 교육도 하고 있음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전문대학원의 실태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고도 산업 사회에서는 대학원 수준에서의 직업 기술 교육, 이를테면 專門大學院 敎育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첫번째 이유는 모든 학생들이 대학 學部課程에서 거의 2 년간 기초 교양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高級人力을 양성할 수 없고, 최소한 석사 수준에서 그러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산업 선진국에서는 기업 경영계, 행정계, 교육계, 언론계, 보건의료계 및 각종 연구소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선호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6) 대한교육연합회, 「교육연감」, 1967.

7) 「문교통계연보」, 서울 : 문교부, 1973.

8) 「문교통계연보」, 서울 : 문교부, 1973, 1983 년 참조. '73 년의 전문대학원 학생 총 수는 4,706 명이고, '89 년의 전문대학원 총 수는 183 개교(국립 35, 공립 1, 사립 147), 학생 총 수는 34,477 명(국립 6,902, 공립 160, 사립 27,415)이다.

두번째 이유는 一般大學院이 수행할 수 없는 기능을 전문대학원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대학원은 전문적·직업기술적 문제를 떠나 심오한 학문적 기초 이론의 규명을 제1차적 기능으로 설정하고 있는 하나의 교육·연구 조직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 학부가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심오한 학문적 진리의 탐구와 탐구된 진리의 教授 기능을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훌륭한 大學 理念을 구현해야 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전문대학원은 先次的으로 연구된 기초 이론을 응용하여 질적으로 수준 높은 전문적 직업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場이 되어야 한다. 물론 전문대학원에서도 연구 활동은 중시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어디까지나 실천과 결부되어 행해져야 한다. 일반대학원이 직업적 실천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의 중심 과제는 客觀的·認識指向的 학문 연구인 것이다.

이와 같이 기능을 달리하는 두 대학원이 현대의 고도 산업 사회에서는 필요하게 된다.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전문적 직업은 보다 細分化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대학은 사고하는 능력보다는 事實的 知識 및 技術의 습득에, 학문하는 정신과 태도의 형성보다는 有用한 지식의 추구에 교육적 관심을 갖게 된다. 고도의 산업화에 기인한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전문대학원의 양적 확대를 초래한 一大要因이다. 美國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전문대학원이 발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전문대학원에서 수여하고 있는 學位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석사학위가 약 150여 종, 박사학위는 약 70종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우리 전문대학원에서 수여할 수 있는 碩士學位의 종류는 9종에 지나지 않고 박사학위는 아직 전문대학원에서 수여되고 있지 않다.<sup>9)</sup>

#### 4. 專門大學院의 改革方向

한국의 전문대학원은 大衆化·多樣化하고 있다. 대중화하고 있다는 것은 뛰어난 학업 성취

를 이룩한 학생만을 선발하여 엘리트로 기르는 교육을 止揚하고,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라 대량의 高等人力을 양성하는 교육 시설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一般大學院은 아직도 선발적·특권적이고, 엘리트 지향적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문대학원의 다양화는 전문 직업 기술이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전문적 직업 기술 교육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화는 필연적으로 전문대학원의 종류 또는 유형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전문대학원은 世界에서 가장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西歐 대학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은 직업에 관한 학문들, 예를 들면 교통학·사진학·세탁학·埋葬學과 같은 것까지도 전문대학원의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다.<sup>10)</sup>

전문대학원의 대중화와 다양화는 과학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종전의 산업 사회가 高度産業社會로 변동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의 경제적 필요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촉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문대학원은 고도 산업 사회의 필연적 產物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고도산업 사회가 超産業社會 또는 知識情報社會로 변모하게 되면 전문대학원의 대중화와 다양화는 한층 더 촉진될 것이다.

그러나 전문대학원의 대중화와 다양화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의 質에 관한 것이다. 교육의 질은 전문대학원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에 관련된 核心的인 문제이다. 한국 전문대학원의 운영자는 營利指向的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의 교수 확보에는 관심이 없어 多人數學級을 편성, 일시에 많은 학생을 교수하는 것이 보통이고, 직업 기술 교육에 필수적인 실험·실습은 오래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教授 자신들도 一般大學院의 학생은 제자로서 성의있게 지도하지만, 전문대학원 학생은 무성의하게 형식적으로 지도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도 學究的인

9)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고등교육 정책연구」, p.439 참조.

10) 李奎煥, 「先進國의 教育制度」(서울: 培英社, 1990), p.395.

의욕과 태도가 부족하며, 대학원 입학 목적이 碩士學位 또는 모종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국한되고 있어 교수와 인간적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전문대학원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夜間教育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학수의 성과를 올리는 데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문대학원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主要因으로 생각된다. 고도 산업 사회에 대응하고 고도 산업 사회를 한층 더 발전시켜 西方先進國에서와 같이 그것을 脫工業社會 또는 知識情報社會로 변모시키는 데 전문대학원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고도의 선진 사회에서는 고도의 전문화된 직업 기술적 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고등 인력은 전문대학원에서 최선으로 양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대학원의 개혁은 산업화의 추진에 기인한 사회의 변모를 고려하고, 고도로 발달된 사회 형태인 脫工業社會의 건설을 목표로 하여 구상되어야 하며, 개혁의 諸原則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원 개혁의 첫번째 원칙은 平生教育理念의 구현이다. 전문대학원은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시설이 될 수 있다. 순환교육 체제(recurrent education)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대학원 수준의 순환교육이란 대학 학부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필요를 느낄 때 대학에 돌아와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순환교육 체제의 전제 조건은 開放的 入學方式을 취하는 것이다.<sup>11)</sup> 영국 개방대학(open university)의 석사 및 박사과정,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립대학원에서는 開放的 入學制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전문적 고등 인력의 양성은 대학원 수준에서의 순환교육 체제를 필요로 할 것이다.

두번째 원칙은 情報를 현명하게 처리하는 능력의 배양이다. 고도 산업 사회에 있어 비약적인 情報技術의 革新은 사회 생활뿐만 아니라 전문 직업이 수행해야 할 내용도 급속히 변질시키

고 있다. 이를테면 정보에 관련된 전문 직업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보 산업뿐만 아니라 유통·금융·여행·인쇄·생산·교육·문화·보건 등에 관련된 직업도 情報技術의 원조 없이는 직업적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정보의 현명한 이용은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變革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수단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활용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정보의 逆機能이 작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를 고찰해 볼 때 우선 情報의 過多 문제가 제기된다. 사람들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각양각색의 정보에 현혹되어 진실을 인식 못하게 되는 지경에 빠지기 쉽다. 다음에 제기되는 문제는 情報의 偏向性이다. 자기 선호하는 정보만을 추구하여 視野가 좁아진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정보에의 접근도에 따라서 지식의 성격이나 깊이에 있어 인간적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情報에의 지나친 依存이다. 정보에의 의존은 인간이 주체적으로 自然과 社會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전문대학원은 각종의 직업 기술에 관해 전문적·심층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교육 시설로서 각종의 情報를 현명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현명한 情報 이용의 여부에 따라 정보는 가치있는 것이 되기도 하고 무가치한 것이 되기도 한다. 다양한 직업 기술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人材養成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은 교육 개혁에 있어 정보를 현명하게 처리하는 능력의 배양을 하나의 중요한 原則으로 설정해야 한다.

세번째의 改革原則은 전문 직업 기술 교육과 知力形成의 교육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명한 정보 처리 능력의 배양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고도 산업 사회 또는 탈공업 사회에 대응하는 人格形成의 문제이다. 유연한 인격, 더 나아가 全人的人格의 형성은 전문대학원에서도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원이라고 해서 전

11) C.K. Knapper & A.F. Cropley, *Lifelong Learning and Higher Education*, Croom Helm, 1985., p. 65.

문 직업 기술 교육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전문 직업 기술은 知力에 기초할 때 보다 심층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문대학원에서의 知力形成은 자연·사회·인간에 대한 수준 높은 교양 교육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종전의 學部水準에서의 교양 교육보다는 질적으로 고차적인 것이 될 필요가 있다.

네번째의 改革原則은 전문대학원이 地域社會와 연계하여 조직·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사회의 사회 경제적 발전 상황과 교육 문화적 수준을 고려해서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설정할 때 그 교육은 현실적이고 가치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지역 사회의 특성에 맞는 전문대학원의 운영이 고도 산업 사회에서 절실히 요청된다. 성과있는 전문대학원 교육은 직업 기술적 現場과 연계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産·學協同은 전문대학원 교육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공장·기업체·행정 관청·은행·언론 기관·방송국·사회사업 단체·재판소·학교·연구소 등이 각각 관련 전문대학원과 연계될 때 그 교육은 활성화되고 가치있는 것이 될 것이다. 전문대학원과 지역 사회와의 유대 또는 연계는 교육의 지역적 봉쇄성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國家性, 더 나아가 國際性을 확보하는 기본이다. 지역 사회와 유리된 전문대학원은 국가 사회와 국제 사회에서 認定받는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시설이 될 수 없다. 한국의 전문대학원은 綜合大學 내에서 소외된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고독한 존재였고, 그 기능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學位

를 팔고 사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문대학원은 그러한 운영 방식을 극복하고 지역 사회의 고도 발전, 나아가서 국가적·국제적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번째의 改革原則은 一般大學院과의 연계를 확보·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一般大學院과 專門大學院 간의 기능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연계 체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대학원은 下位的 大學院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 변동에 따른 직업 구조의 전문화 또는 분업화에 대응하는 전문 고등 인력을 만족스럽게 양성해 내지 못하고 있다. 고도 산업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원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學位課程을 二元化하여, 이를테면 기초적인 학문 연구 지향적 一般大學院과 전문 직업 기술 교육 지향적 專門大學院으로 구분·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2)</sup> 현재까지 이러한 二元的 운영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양자의 연계 관계는 거의 성립되지 못했다. 兩大學院이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될 때 이상적인 대학원 교육은 현실화될 수 있다.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각각의 특성을 살리고 성취된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상호 보완할 때, 理論과 實踐의 결합을 필요로 하는 현대 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고도 산업 사회를 넘어서서 탈공업 사회 또는 지식 산업 사회가 도래하는 경우, 大學院水準에서의 학문 연구 지향적 교육과 전문 직업 기술 지향적 교육이 상호 연계할 필요성은 가일층 증대할 것이다. \*

12) 한국교육개발원, 「전제서」, pp.346~347.